

파키스탄 개발포럼 개최 결과

주요 원조공여국 외교단 및 정부대표, ADB 등 국제기구대표 및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4월 25~26일 파키스탄 정부 주관으로 파키스탄 개발포럼(PDF)이 파키스탄에서 개최되었는 바, 포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핵심요지

- Shaukat Aziz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 국민총생산 6.5% 성장 달성, 해외직접투자증대, 외환보유고 안정 등 각 부문에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이미지 개선 노력강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주요국 · 공영 기업민영화 지속, 금융 및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에너지개발 국제협력 강화정책 등을 통해 7~8%대의 경제성장을 달

성 · 유지한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자원 확보, 에너지 안보, 인프라개발, 인적자원개발이 최우선과제임을 강조, 각국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 포럼에 참석한 WB, ADB, 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 3~4년간 파키스탄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향후 파키스탄의 정치 · 안보 상황이 안정될 경우 7~8%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하면서 도로, 댐, 에너지분야 인프라 개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키스탄 정부에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촉구함.

II. 주요내용

1. 전체회의(개막식)

- ADB는 2005 회계년도 6.6% 경제성장을 전망하

고 향후 5년 내에 8%대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경제개혁 지속이 관건이며 경제성장 성과가 빈곤층 및 지방에 확산되도록 하는 정책이 긴요함을 강조함

□ WB는 금년도 7% 경제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경제성장 과실이 빈곤층,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침투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21세기에 대비한 인프라 개발, 노동시장 육성, 조세행정 개선, 지방개발 확충 등의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함.

□ IMF는 파키스탄이 2004년도에 IMF 체제를 졸업한 점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IMF 졸업 이후 물가상승 압력,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문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민간여신 확대 등 은행분야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2. 빈곤퇴치 및 고용창출

□ EU는 파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각 분야별 '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가 양성간,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며 경제성장 자체가 절대빈곤층 해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MDG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기개발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 배양을 위해 국가 차원의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함.

3. 사회 인프라 개발 및 민영화

□ 파키스탄 정부는 MDG 달성을 위해 수자원 관리,

도로, 항만, 에너지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소요재원 등 인프라 개선 기본 구상을 제시하면서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강조함.

-ADB는 파키스탄 정부의 각종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와 관리부실로 막대한 투자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사후 관리 능력배양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파키스탄 정부는 통신, 건설, 전력, 에너지 분야 주요 공기업 민영화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으며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특정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 문제점 제기에 대해 향후 투명성 제고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함.

4.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 파키스탄 고등교육위원회(HEC)는 사회·경제 개발을 위해 인적자원개발(HRD)이 기본 요건임을 강조하면서 기초교육 확대, 문맹퇴치 및 기술·직업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요원 확보 및 교육시설 정비가 필수적인 바, HRD 분야에 향후 2~3년간 약 700억 루피(약 10억불)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5. 산업·통상·농업 정책

□ 파키스탄 산업부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간 2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8%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부진요인으로 10~15년 주기의 정정불안 반복과 산업생산 부진 사이클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적, 정치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섬유, 기계, 중소기업

- 업 육성 등의 전략을 통해 2010년까지 제조산업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상무부는 수출 지역 및 품목 다양화를 통한 수출확대와 수출환경 개선 등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면서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원자재 수입 등에 대한 최고 관세율을 25%까지 완화하였으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또는 PTA) 추진, SAFTA 발효 노력 강화 등 국제적 차원의 수출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함.
 - 식량·농업부는 파키스탄의 농업부문이 GDP의 25%, 고용의 49%, 직·간접 포함시 전체 수출비중의 70%를 차지하는 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WTO위생검역(SPS)에 따른 규제 등이 수출증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품질, 위생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지원을 요망함.

III. 관찰

- 파키스탄 정부는 금번 포럼을 통해 중기개발계획 및 MDG 이행을 위해 총 410억불 규모의 재원이 소요됨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 원조공여국의 재정지원과 투자를 유인하는데 노력을 집중함.

- WB, ADB, IMF 등은 최근 3~4년간의 경제성장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인프라 개발, 에너지분야 개발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파키스탄 정부에 대해 행정 효율성 및 각종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를 요망함.
- 미국측 USAID 대표는 인적자원 개발이 사회경제 개발의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기초교육 및 기술·직업교육에 개발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농업분야 발전과 사회적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유력자(일종의 영주)의 대토지 소유관행 등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함.
 - 미국대표는 또한 국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소유권 제도 등이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
- 일본은 4월 30일~5월 1일간 고이즈미 총리의 파키스탄 방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학계, 원조기관(JICA) 및 외무성 대표로 구성된 본부대표단을 포럼에 파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98년 이후 중단된 엔차관 재개 등을 강조함.
- 네덜란드, 스위스 및 EU 등은 개발계획 자체도 중요하지만 각종 지원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기함.

[자료: 주파키스탄 대사관]